전통음악, 국악관현악으로 재탄생 '2017 리컴포즈'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3월 24~25일 2017 리컴포즈



2017 리컴포즈 공식 포스터.

전통음악에 국악관현악기를 입히니 노래 속 애절함과 세월의 견고함, 느린 음의 미학이 더욱 진해진다. 세월 범패의 짓소리, 제주 민요 '진도굿', 전통 성악곡 '이수대엽', 정읍사의 반주곡서 궁중음악으로 발전된 수제천까지 각기 다른 4가지 전통음악이 국악관현악기를 통해 재탄생된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임재원)은 '2017 리컴포즈'를 3월 24일과 25일 달오름극장서 선보인다. 2014년 시작된 리컴포즈 시리즈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시각에서 접근, 동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리컴포즈 시리즈는 일반적인 연주회와 달리 매번 위촉 초연 작품으로만 무대를 구성해 더욱 주목받았다. 2017 리컴포즈도 마찬가지로 전곡 위촉 초연이다.

국립극장은 "초연무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란 소재의 견고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탄탄한 연주력으로 공연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며 "국악기에 대한 막연한 지식만으로 도전을 망설이던 작곡가들도 전통음악의 무궁무진한 다양성을 인정, 단원들과 작곡가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리컴포즈는 서양음악에 뿌리를 둔 4명의 작곡가들이 우리 전통음악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 국악기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뽐낸다. 강순미 · 강은구 · 김대성 · 김혜자 작곡가는 모두 서양음악을 통해 작곡 세계에 입문했지만, 다년간 우리 음악에 대해 연구 및 시도하며 각자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김혜자 작곡가의 '영산지심'은 불교 범패의 짓소리 '영산지심'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승려들이 그룹을 이뤄 합창으로 서로 경쟁하듯 부르는 형식의 짓소리를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해 악기의 음색, 성부의 수, 강약의 표현 등을 통한 합주와 합주의 대비를 만들어냈다.

김대성 작곡가의 '진토굿'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음악 장단들이 총망라된 작품이다. 서두는 범패의 짓소리로 시작해 제주도의 토속민요와 고악보 소리 등 여러 장단들이 이어진다. 국립극장 측은 이 곡을 두고 '다양한 전통음악의 리듬이 강렬히 어우러진 한 판 굿'이라 예고하며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작품 중 가장 민속적이면서도 어둡고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곡이라 평가했다.

전통음악 현대적 접근위해 2014년 시작

올해는 짓소리 등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

강순미 · 김혜자 작곡가 등 최강 라인업

풍부한 감정, 다양한 악기 기교 느낄 것

또한 강순미 작곡가의 '달아, 높이 떠서 멀리 비추어 다오'는 민간음악서 궁중음악으로 발전된 '수제천'을 본연의 애절함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국악관현악곡이다. 강순미 작곡가는 '수제천' 속 내재된 일상의 감각, 박자의 개념을 초월한 느린 세계에 주목했다. 다양한 악기의 기교를 만끽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리듬의 변주들을 담아낸 작품이다.

강 작곡가는 "강렬하고 웅장한 수제천의 주선율 위로 이어지는 잔물결과 같이 영롱하고 현란한 장식음들을 활용했다"며 "현대적인 사운드를 뿜어내는 외연을 벗겨내면 그 안에 애절함이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완연한 봄, 서정미에 흠뻑 취하고 싶다면 강은구 작곡가의 곡 '버들은 실이되고…'에 주목하자. 이 작품은 전통 시조시이자 노래하는 가곡 형식의 '이수대엽'을 웅장한 국악관현악곡으로 변화시킨 곡이다. 기존 노래에서 창자의 긴 호흡을 여러 악기들의 호흡으로 나누고, 절제된 감정은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 표현했다. 다양한 감성들이 국악기를 통해 발현되는 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국립극장은 이번 리컴포즈 공연서 음향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연장을 달오름극장으로 선정했다. 국립극장 측은 "그간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대규모 편성에 따라 대극장인 해오름극장서 연주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해오름극장의 지나치게 넓은 객석 공간과 무대 및 객석 간 먼 거리로 인한 음향적 한계도 발견했다. 이에 2017 리컴포즈는 국악기 고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하모니를 보다 내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달오름극장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17 리컴포즈'는 24일 오후 8시, 25일 오후 3시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4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t) 또는 인터파크, 티켓링크서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6C 조선 감로탱화, 불교지화로 장엄

정명 스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전시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가 부처님을 찬탄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장엄물, 불교지화로 재탄생한다.

불교지화 명인 정명 스님(조계종 연화세계주지 · 사진)은 3월 23~26일 열리는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불교전통지화 특별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서 정명 스님은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 속 전통불교의식의 재현을 불교지화로써 재현한다.

감로탱화는 우리나라서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로, 교토 류간사에서 봉안되고 있던 것을 지난 2010년 주지 에지마 고도 스님이 자발적 의사로 기증해 40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와 화제된 바 있다.

정명 스님은 "문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고, 시대에 따라 발전돼야 비로소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불교지화가 가지는 가치와 역사성, 재현을 통한 기법복원 등을 통해 그림 속 장엄물들이 우리들 삶으로 화들짝 뛰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전통지화 특별전'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후 오후 1시 별도의 개막행사를 갖는다. 아울러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불교와 무속 지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박아름 기자

"〈古記〉, 탈중화 의식 바탕 불교역사서"

김승호 교수, 불교연구회 춘계학술대회서
古記 담긴 불교설화 분석
수직 · 수평적 전이 이뤄져

고대부터 고려 초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고기(古記)〉는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보다 200여 년 전 앞서 찬술된 사서(史書)이다. 역사서 〈고기〉가 탈중화 의식을 바탕으로 기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호 동국대 교수는 3월 11일 열린 불교학연구회 · 동악어문학회 공동 춘계 학술대회에서 〈고기〉 소재 설화를 분석하고 이들의 맥락과 의미를 되짚었다.

김 교수는 〈고기〉에 내재된 한반도가 불국토임을 입증하는 설화들이 주로 수직과 수평적 전이로 분류됨을 주목했다. 수직적 전이의 경우 천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티브를 그대로 불교 천신 '제석환인(帝釋桓因)'을 통해 답습하고 있으며, '제석환인'은 천신으로서 지상 불국토화를 이뤄나간다.

김 교수는 "〈고기〉에서 제석환인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은 신라 · 고려시기 제석 신앙이 크게 주목받았으며, 어떤 천신보다 대중강화적 면모가 강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환인이 지상으로 하강하는 것은 기존 신화적 내용 전개에 해당되나 최종 목표가 지상의 불국토화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건국 신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평적 전이는 금강산 유점사의 연기설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점사 설화는 사찰 터를 찾기까지 천축, 해양, 신라로 이어지는 횡적 자취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는 불성(佛性)이 충만한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의 동진현상을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가 중국이 아닌 해양을 통해 전래되고 있는 것은 찬술자의 탈중화 의식이 드러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고기〉를 살펴보면 불교는 북방의 중국이 아닌 해양을 통해 남방으로 유입된다. 이는 찬술자의 탈중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중국보다 앞서 불교문화를 수입할 수 있었다는 상황적 조건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불교적 연원이 가장 깊다는 자긍심도 읽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6C 백제 금동보살상 일부 발견

부여 나성 시굴조사서… 불두 · 광배 등 소실

6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백제 금동보살상이 발견됐다.

부여군은 "고도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재)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국가사적 제58호 부여 나성(북나성) 시굴조사 중 백제시대 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보살상이 발견됐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금동보살상은 부소산성에서 청산성으로 연결되는 북나성 성벽선 중 청산성 서쪽에 위치한 낮은 구릉부인 쌍북리 산지구간의 성벽선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시굴조사에서 발견됐다.

출토된 금동보살상은 전면만 조각한 입상(立像)으로 몸체와 손부분만 남아있고 불두 · 광배 등은 유실된 채 확인됐다.

보살상의 잔존 크기는 길이 6.3㎝, 너비 2.4㎝로 봉보주형(奉寶珠形) 보살상이다. 보살상의 뒷면에는 광배에 보살상을 고정시키기 위한 촉이 남아있어 일광삼존불의 협시보살상일 가능성도 있다.

출토된 금동보살상에 대해 부여군 관계자는 "발견된 보살상은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상(보물 제330호), 부소산 출토 금동삼존불편 등과 유사한 형태"라면서 "6세기 중엽 중국 남조의 양식을 받아 백제만의 특유한 표현력이 가미돼 제작된 것으로 화려했던 백제 사비기의 불교문화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여 나성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보살상. 불두와 광배 등은 소실됐지만, 부소산 불상편들과 유사해 의미가 크다.

이어 "부여 나성 인근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현장 자문회의 등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근지역에 대한 추후 정밀 발굴조사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미륵신앙, 학술적 의미 조명

대광사, 26일 미륵대불 봉안 기념 세미나

천태종 대광사(주지 월도)는 3월 26일 오전 10시 미륵대불 봉안을 기념해 천태종의 미륵신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천태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의 주관해 '천태종의 미륵신앙과 불사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이 '한국 미륵신앙의 역사와 정신', 김동욱 경기대 명예교수가 '대광사 3층 미륵보전의 건축 특징과 가치', 이기선 한국불교조형연구소장이 '대광사 미륵대불 조성과 신앙',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의 '천태종에서 미륵신앙의 의의' 등을 주제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 · 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